

지난 28일 안드레아 보첼리 공연이 열린 이탈리아 테아트르 델 실렌치오 무대(왼쪽)와 보첼리 고향마을에 설치된 박은선 조각가의 작품.

/연합뉴스·박은선 작가 제공



목포출신 박은선 작가, 보첼리 공연 빛내다

이탈리아 보첼리 고향에서 열린 콘서트에 조각 작품 '무한기둥' 설치 신안 자은도에 세계적 건축가 마리오 보타와 '인피니토 뮤지엄' 건립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고향은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 라이아티코다. 인구 1000여명의 작은 마을에서는 1년에 단 하루 특별한 공연이 열린다. 마을 인근 평원에 세운 특설무대 '테아트르 델 실렌치오'에서 개최되는 보첼리의 콘서트는 언제나 화제 만발이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2만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17번째 공연에서는 보첼리의 노래와 목포 출신 조각가 박은선(57)의 조각 작품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가 연출돼 관람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특히 박은선 작가는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와 함께 신안 자은도에 들어서는 '인피니토 뮤지엄'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유럽을 거점으로 활동중인 박작가는 이날 공연 무대에 11m 높이의 작품 '무한기둥(Colonna infinita)'을 설치했다. 연회색과 검은색의 대리석 판들이 스트라이프 무늬처럼 켜켜이 쌓이며 공중을 향해 끝없이 솟아오르는 이 조각은 다양한 색감의 무대 조명과 어우러져 눈길을 끌었다.

보첼리는 매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으로 무대를 꾸며왔다. 지난해에는 '살아있는 피카소'로 불리는 스페인 조각가 마누엘 발데스가 참여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출신 거장 아르날도 포모도로 등이 함께 했으며 아시아 작가로는 박 작가가 처음 초대됐다.

박 작가는 9개월에 걸쳐 작품을 제작했고 행사 주최측은 조각품에 맞춰 무대를 설계했다. 그의 작품은 공연장 무대 뿐 아니라 라이아티코 중앙광장과 성당 등에도 설치됐다. 박 작가는 지난해에는 보첼리 소유 비치클럽에서 야외전시를 갖기도 했다. 이탈리아 3대 갤러리 가운데 하나인 콘티니 아트 갤러리가 기획하고 보첼리가 주최한 조각전으로 '바다에서 무한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박 작가가 참여하고 있는 신안 인피니토 뮤지엄은 하나의 섬에 하나의 뮤지엄을 건립하는 '1도(島) 1뮤지엄' 아트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는 계획이다.

자은도는 무한의 다리와 등장하면, 뮤지엄파크, 백길·분계해수욕장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함께 최근

라마다 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가 문을 열면서 쉬어가기 좋은 관광 명소가 부상중이다. 특히 지난 1일 국토부가 지정한 전국 유일의 '투자선도 지구'로 선정되면서 각종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둔장해변 일원에 건립중인 인피니토 뮤지엄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박작가의 작품 등이 들어서는 야외 조각 전시장, 실내 전시장, 정원, 카페, 책방,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된다.

'인피니토'는 '무한'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섬과 섬을 무한히 연결하는 영속성, 그리고 박작가의 작품 주제인 '무한 기둥'의 철학적 의미를 담았다. 현재 마리오 보타의 디자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오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지난해 11월 김영록 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마리오 보타, 박은선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신안 인피니토 뮤지엄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희대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이탈리아 카리라 예술극립아카데미를 졸업한 박 작가는 1993년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시에 정착했다. 질종은 대리석 주산지로 미켈란젤로, 헨리 무어 등 세계적 작가들이 작업한 피에트라산타시는 '조각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박 작가는 2018년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피에트라산타시가 매년 최고의 조각가에게 수여하는 '프라텔리 로셀리'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조각 예술에서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아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피에트라산타의 명예시민이 됐다.

박 작가의 작품은 이탈리아는 물론 프랑스, 스위스, 룩셈부르크, 미국 등 여러국가의 공공장소에 20여점이 설치돼 있으며 목포 성옥미술관 야외 정원에 서도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디자인을 맡은 스위스 출신의 건축가 마리오 보타는 서울 강남 교보타워, 삼성미술관 리움, 샌프란시스코현대미술관 등을 설계한 건축계의 거장이다.

한편 신안군은 안드레아 보첼리를 인피니토 뮤지엄 개관 기념 공연에 초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으로 담당자들이 보첼리 콘서트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해 '인피니토 뮤지엄 건립 협약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건축가 마리오 보타, 박은선 조각가. <왼쪽부터>



박은선 작가의 작품은 고향인 목포 성옥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다.



'Recollection'

섬마을 풍경, 바람이 분다

박구환 초대전, 9월30일까지 고흥 남포미술관

'화폭에 풀어낸 따뜻한 풍경'
고흥 남포미술관(관장 광형수)은 오는 9월 30일까지 박구환 초대전을 개최한다.

오랫동안 관화 작업을 해온 박 작가는 10여년 전부터는 판화와 유화를 만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펼쳐보고 있다. '희상·바람이 분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판화를 기반으로 한 유화·작품 45점을 선보인다.

독특한 질감과 화려한 색감이 특징인 박 작가의 목판화 작품에 익숙한 이라면 이번 전시작을 보고,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다. 나뭇가지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송이들이 붓으로 일일이 짙어 바른 작품에선 판화 고유의 느낌과 더불어 유화적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작들은 그만이 할 수 있는 판화 작업의 장점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회화적 기법까지 함께 담아 개성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울퉁불퉁한 곡선 등 목판화로 찍어낼 때 발생하는 우연성들은 붓으로 결코 만들어 낼 수 없는 흔적들이고, 그 자취들과 유화 작업이 어우러지며 목판화의 투박미와 더불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전시작들은 평화롭고 위안을 준다. 작가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섬마을 풍경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감있는 이야기,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꽃이 만개한 나무들을 다채롭게 등장시켰다.

지나왔던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들로 화면 속 배경들은 편안하고 포근하며 파스텔톤의 따뜻한 색감은 위로를 전한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동대학원 미술과를 졸업한 박 작가는 뉴욕과 동경을 비롯해 후쿠오카, 대만 카오슝, 서울, 부산 등에서 39회 개인전을 열었고, 그룹전과 초대전에 500여회 이상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할머니 찾아 떠나는 '늙은 개' 누렁이

'극단 나무' 그림자극... 14~15일 ACC 어린이 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이하 'ACC재단')은 ACC 어린이극장 공동기획 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공연을 8월부터 12월까지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 무대에 올린다.

첫 번째 작품으로 여름방학 기간인 14~15일 이틀 동안 늙은 개 누렁이가 주인공 할머니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린 '극단 나무'의 그림자극 '늙은 개'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서사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며, 그림자와 배우의 연기를 통해 이야기가 리듬감 있게 펼쳐진다. 그림자극에 담긴 다채롭고 매력적인 장면을 통해 반려동물이 가지는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보다 입체적이고 공감각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2006년 창단한 '극단 나무'는 "세계의 중심에 어린이가 있다"는 모티브로 인형극·가면극·연극놀이·마임·거리공연 등 다양한 장르를 창작하는 전문 극단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작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14~15일 각 3회(오전11시·오후2시·오후4시30분) 총 6회 공연하며,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다. 관람권은 전석 1만5000원. 한편 극장 및 어린이공연 활성화를 위해 ACC재단과 공연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ACC어린이극장 공동기획 프로그램'은 지난 6월 작품공모를 통해 4개 작품을 선정했다.

이번 늙은 개를 시작으로 ▲10월 1~2일(사)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전통연희 '개똥이'와 무등산호랑이 ▲10월 29~30일 아트컴퍼니 행복자의 국악뮤지컬 '개미 친구 삼삼이' ▲12월 10~11일 극단 북새통의 음악극 '행복한 왕자'를 차례로 선보인다.

ACC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예술적 창작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린이 문화발전소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참선과 명상'

광제선원, 단식참선 수행자 모집 108배·입선·포행 등 프로그램

'단식을 통한 참선'

'참선과 명상을 위한 수행도량' 광제선원(선원장 보명·광주시 서구 양동 283)이 여름 단식참선 집중수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여름 단식참선 집중수행은 단식을 바탕으로 108배, 조실스님 몽산법어 부록 듣기, 입선, 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선에 이르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4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집중수행 프로그램은 뜨거운 불탄식법으로 매일 오전 9시 시작해 오후 9시에 종료된다.

광제선원은 발산공원 내에 위치해 아름다운 자연



광제선원(광주시 서구 양동 283) 전경사진.

<광제선원 제공>

속에서 온전히 수행에 정진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명스님은 "참선이 생활화되면 삶이 안정되고 관계성이 건강해져 결국 세상이 평안해진다"며 "참선의 세계를 알게 되면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텀블러와 개인 수건, 편한한 옷 등을 지참하면 된다. 광제선원은 매년 여름과 겨울 일주일 간 단식참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문의 010-9191-9687.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